

소설 부문

리 달린 인간: 역사상 첫 발걸!

꼬

읽어 보셨나요? 오늘 신문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믿으셔도 좋아요. 내가 그 주인공이니까요. 며칠 전 꼬리를 캐 망이웃은 덕에 이 소동이 벌어졌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느 날처럼 거리에서 사람들 하체를 살피고 있을 것을 겁니다. 지금은 뉴스를 끌내고 전선을 매단 채 누워 있어요. 뇌 과학자들이 신경 사نس과 뇌파를 확인하겠다며 부착해놓은 것입니다. 뇌 과학자뿐만 아니라 유전학자, 진화 생물학자, 음성학자, 인류학자 등 여러 학과 연구원들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음성학자는 나의 성대구조가 언어 발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며 성대와 구강 구조를 영상 활용해 갔습니다. 이제 인류학자 차례가 됩니다. 그가 미국 자연사박물관 생물학부 대장을 해주네요. 1938년에 뉴기니 대립곡에서 오만 명 파푸아인을 발견했다고요. 발견 당시 그들은 석기 시대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원시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라 학계는 전망했네요. 그래서 원숭이 인간 발견에 다들 흥분되어 있다고요. 게다가 나는 조각도 하고 말도 하는 원숭이니까요. 인류학자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해달립니다. 그리고 숨길 수 있었던 꼬리를 일부러 밝혔던 이유도요. 그래요. 내가 원하던 바입니다. 다 말 쓸드리죠. 과학자 나리들도 한 번 들어 보세요. 유전자 결론에 매몰되어 DNA만 검사해서는 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

야 칠백만년 전 사람은 침팬지와의 공동 선조로부터 분기되었다죠? 그 사이 인간과 침팬지 DNA는 1.4% 차이가 벌어졌고요. 그 1.4% 유전자 차이를 인간은 진화라 부르더군요. 발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말이죠. 물론 ‘진화’라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현대판 바벨탑 같거든요.

역사를 보세요. DNA에 담긴 칠백만년 유전자 정보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과학혁명 이후 축적된 정보는 문자화 되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지요. 실제 우주적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 예술, 역사, 문화 등도 모두 유전자에 비할 수 없이 크게 복잡한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어떻게 유전자 하나로만 존재를 규정한단 말입니까? 우주의 미로를 여행하면서 어떻게 횡단이 아닌 진화의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이해하는 세계는 모래알 같아요.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언어와 사고력을 제외하면 원숭이의 생활양식은 사람과 비슷해요. 계급사회지요. 다만, 생존을 위한 계급이에요. 위계가 존재하지만 존경이나 저항을 초래할 만큼 관념적 우열은 아닙니다. 원숭이에게는 관념이 없으니까요. 모든 본능이 생존과 번식을 지향합니다. 집단의 싸움조차도 무리를 위한다기보다 개체의 안전을 위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그러한 순수 본능이 편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속내를 가늠하여 이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 놈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투명하고, 잠은 달았답니다. 좌취하는 놈도 등처먹는 놈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서열대로, 대지의 여신이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아먹으면 그뿐입니다. 꽤 건강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늘 낯설었어요. 그런 자연 질서가요. ‘왜?’라는 생각을 펼쳐버릴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정교하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텔로 뒤파인 내 몸 뚱어리며. 수컷 암컷 원숭이가 나누는 것도,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배불리 먹고 서로 텔 고르기 하며 나른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만. 나는 종일 하늘을 올려다 보면 혀든 생각에 빠져들었지요. 섭리는 일개 원숭이에 무심한데 나 혼자만 세계를 이해하려 끌끌하고 있으니 헛되지요.

어쨌든 그다지도 구름 흘러가는 것을 보거나, 바람 속 이득히 몇 곳의 낌새를 맡기거나 하면 망상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놀이 은 과일 향은 시간을 거스르고, 계절은 기적적인 천연색들을 만드는데 어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늘 걸돌았지요. 원숭이에게 인간과 같은 언어가 있다면 저는 육체적 폭력과 함께 언어적 폭력에도 시달렸겠지요. 이 슬모없는 놈, 한심한 놈 하면서요. 다행히도 그런 언어가 없으니 그저 쫓겨 다니며 괴롭힘만 당하면 되었습니다.

계 금이 높았다면 나를 좀 내버려 두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의 엄마는 하층계급이었고 나 역시 그랬어요. 원숭이 사회는 어미와 따라 새끼 계급도 정해지니까요. 물론 가장 낮은 서열은 아닙니다. 나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키요마의 엄마가 가장 낮은 계급이었죠. 키요마는 꼬리 부분이 환색 텔로 덮인 귀여운 암컷 원숭이였지요. 꼬리를 꽂았을 때 친구들면 흰 깃발이 나부끼듯 고고해 보였지요. 내 꼬리는 괴롭힘으로 끌이 흉하게 휘어버려서 키요마의 꼬리를 참 좋아 보였어요.

키 요마는 어린 암컷인데도 용감한 녀석이었지요. 내가 얻어맞으면 옆에서 꺽꺽거리며 주위를 집중시켜 주었어요. 운이 좋으면 대장이 와서 괴롭힘을 중단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대장의 텔 고르기를 해야 했지만요. 키요마를 좋아했어요. 운명을 알면 서도요. 암컷은 절대로 무리를 벗어날 수 없고, 운이 좋다면 우두머리의 여자로 보호를 받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키요마의 엄마처럼 힘센 수컷들과 어울리며 평생 새끼를 낳고 목숨을 보존해나가겠지요.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허물어진 왕궁터와 사원을 품고 있는 유적지였어요. 도로를 경계로 동쪽 구릉에는 유적지와 숲이 자리했고 지대가 낮은 서쪽은 사람들 마을이 위치했습니다. 유적지에는 무화과나무와 일년 내내 마르지 않은 강줄기가 흐르고

원숭이 인간

차현숙

대장부터 공격했습니다. 세 놈이 대장의 팔다리를 불잡자 애꾸가 목을 물었죠. 버둥거리던 몸이 죽 늘어지자 애꾸는 대장의 한 쪽 팔을 잡고는 질질끌고 돌아 다녔습니다. 가끔 멈춰 서서 보란 듯이 대장을 물어뜯었습니다. 대장은 너털너털해진 몸으로 피침을 한 채 고통의 신음을 뱉어 냈습니다. 남은 유적지와 원숭이들이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멀고 있을 때 애꾸는 마지막으로 대장의 고환을 물어뜯어 숨통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비백산해서 흘어졌습니다. 나 역시도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키요마를 찾으려 잠시 두리번거리는 사이 뒷다리를 접혔지요. 오른쪽 사타구니를 물어뜯긴 순간 벼락같은 고통이 관통했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 는 여버 끔 꼼꼼히 깨우쳤습니다. 꿈 속에서 키요마가 꼬리를 치켜세우며 조각상을 보려 가지고 끌더군요.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다고 하자 키요마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오른쪽 눈 밑에 깨인 상처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텔 고르기를 거부해서 서열 높은 암컷 원숭이에게 물린 상처였어요. 제 눈에는 흉터가 작은 별처럼 보였습니다. 아시라! 조각상을 보아야

앉은뱅이로 살게 되니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게였습니다. 고통은 무거워 가라앉고 행복은 가벼워 날아가나 봅니다. 내 눈높이에서는 온통 무거운 걸음걸이와 다리만 보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걷는 이가 없었어요. 멀리서 보면 모두들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그들의 걸음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양발을 같은 각도로 벌리고 걷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발 중심이 약쪽으로 모인 사람,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들은 발을 땅에 끌며 느리고 구부정하게 걷더군요.

멀 리서 보면 곧아 보이던 다리도 가까이서 보면 전혀 곧지 않았습니다. 다리에는 삶의 노고가 그대로 배어있었습니다. 담쟁이덩굴처럼 흘러내리는 푸른 정맥, 피가 비칠 만큼 갈라진 발뒤꿈치. 새까맣게 변해버린 발톱 등 하체는 무공 훈장을 매단 늙은 군인처럼 간신히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도 평생 쪼그리고 앉아 걸을 때도 아기처럼 아장아장 걸었고 일어날 때도 한 번에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한참을 엉겨주춤 서 있다가 조금 편안해지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었

습니다. 해 뜰 무렵 집을 나섰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머리 위로 올라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 끝 허름한 건물 앞에 수레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수레에 앉아 가방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상한 과일을 던져 주더군요. 꼬마들은 막대기로 내 물을 쭉쭉 짚어댑니다. 그러자 말라고 소리칠수록 사람들은 신나하며 더 귀찮게 했습니다. 왁자지껄 소리에 할아버지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짓궂은 사람들을 쫓고 나와 가방을 안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 물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 대형 작업장이 있고, 안쪽으로 방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각을 위한 작업장이나 도제들을 위한 숙소 같았습니다. 작업대에는 청년 몇 명과 소녀 한 명이 나무 조각상을 불들고 있더군요. 소녀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애워 등이 굽은 소녀였어요. 칠흑같이 까만 머리에 한 줌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새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려 다가갔지만 소녀는 고개를 쭉 수그리더니 등을 돌려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모양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길이 지난 때마다 길이 나고 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때 벨노인과 이야기를 끝 날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끌었습니다. 떠나려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소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올링이는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뭇이 마르고 심장이 따끔거렸습니다. 키요마가 그리웠던 걸까요. 집에 돌아온 뒤 잘 못되어 버려진 조각 도구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조금 큰 듯 했지만 그런대로 잡을만했습니다. 작은 흑단나무 토막을 주워와 일하는 할아버지 옆에서 조각칼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리다보더니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궤짝을 가져와 내 앞에 얹어 놓았습니다. 창고에서 본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라 여겼나 봅니다. 나는 조각칼로 나무를 찔러보았습니다. 나무는 생각보다 단단하더군요. 조각칼을 놓쳤어요. 다시 주워 손아귀에 힘을 꽂고 세로로 길게 한 줄 쏴내었습니다.

아! 조각칼이 나무위에 처음 길을 내던 순간. 그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된 조각칼 한 자루에 모든 전능한 힘이 실린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운명’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을 위해 숨은 어둠의 시간들을 견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현할 길 없던 나의 바다가 이 조각칼 한 자루를 거쳐 미지의 세계와 조우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잊고, 굽고 파고 깎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손은 조각도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벼겁던 조각칼이 손에 딱 들어맞더군요. 태어날 때부터 조각도를 쥐었던 듯 조각도 만들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낯설기’와 ‘분열’이 조각하는 동안 ‘의미’와 ‘화해’로 탈바꿈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희의 춤을 추는 작은 불꽃, 산자락에 쉬고 있는 태양, 나를 흘려 같이 떠나자던 구름, 고립된 삶에게 걸을 내주던 친구들을 편면위에 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조각을 한참 바라보더니 머리를 여러 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시라 아시라 하며 몇 마디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는 대장간 문 위에 뜻을 박고 조각품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 때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전기신호가 친동처럼 척추로 꽂혔습니다. 아프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기분이 좋아 다리를 쭉 펴고 두 발로 섰습니다. 전혀 아픈줄 모르겠더군요. 내친 김에 제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궁하고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연달아 떨어졌더니 금세 성공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공중제비가 끝나자 나를 들어 올리고 볼을 비벼주었습니다. 많이 무거웠던지 할아버지는 힘들어지시더군요. 그 때는 내가 무거워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표현하고픈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요마를, 유적이 보았던 불상을 수도 없이 새겼어요. 조각칼을 쥐고 있으면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키 만한 나무토막을 이리저리 흘려내며 키스하는 정도로 끝나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불 앞에서 고심하였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눈이 맑아지니 이치가 보이더군요.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것과 흘려내야 할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만든 세계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각에 몰입할수록 사람의 말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화가 김영화 삽화

있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었지요. 그래도 가끔은 도로를 넘어 사람들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활기찬 시장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걸음걸이를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게 싫증나면 키요마와 함께 유적지에 있는 조각상들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두 귀가 불룩하게 늘어진 불상, 이름을 알 수 없는 왕족, 꼬리를 세우고 웃고 있는 원숭이 조각상 앞에서도 오래 오래 머물고 했습니다.

시 장을 구경 할 때는 시장과 원숭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어요. 마을은 시장과 원숭이에게 차지한 곳이니까요. 언제나 배가 고픈 마을 원숭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가정집 음식을 훔쳐 먹으며 살았어요. 건강에는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가 달콤해지는 계절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대장 애꾸는 지난 해 무화과 싸움 때 우리 대장에게 흔씬 두들겨 맞고 이를 깨고 있었지요. 유적

해. 어서 따리와. 아시라가 누구지. 생각하며 기를 쓰며 따라가려 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키요마의 흰 꼬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키요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눈물을 닦아 주는 기색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아시라’하고 부르더군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시라는 ‘죽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운명이었나 봐요. 마침 지나가던 대장이 할아버지를 제 목숨을 구해주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유적지 뒤편 대장간에서 혼자 살았어요. 가끔 아이 사진을 보며 한 숨 쉬던 것을 보면 나를 그 아이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덕분에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예전처럼 나무 오르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 는 하루 대부분을 할아버지를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종일 쭉 그리고 앉아 달궈진 석탠파이프를 두드렸어요. 두드리고 식히기를 반복하면 그것은 칼이 되고, 삽이 되고, 쟁기 가 되었습니다. 간간이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큰 철공소가 있었지만 할아버지 솜씨를 흡모하는 손님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다녀갔습니다. 윤이 반지르르 흐르는 것을 확인한 뒤 연장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작은 수레에 가방을 싣고, 나를 번개 들어 그 위에 올려주

습니다. 끊어질 듯 저런 나의 다리가 할아버지의 걸음에서 말 못 할 고통의 냄새를 맡는 건 당연했어요. 할아버지는 한 걸을 내딛을 때마다 내 심장에 쿵쿵 밤자국이 펴되었습니다. 화과는 계절을 세 번 더 맞이했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에는 키요마가 고개를 펴고 두 발로 섰습니다. 전혀 아픈줄 모르겠더군요. 내친 김에 제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중간에 궁하고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 세 번 연달아 떨어졌더니 금세 성공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공중제비가 끝나자 나를 들어 올리고 볼을 비벼주었습니다. 많이 무거웠던지 할아버지는 힘들어지시더군요. 그 때는 내가 무거워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표현하고픈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키요마를, 유적이 보았던 불상을 수도 없이 새겼어요. 조각칼을 쥐고 있으면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키 만한 나무토막을 이리저리 흘려내며 키스하는 정도로 끝나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불 앞에서 고심하였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눈이 맑아지니 이치가 보이더군요.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내가 욕망할 수 있는 것과 흘려내야 할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만든 세계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각에 몰입할수록 사람의 말이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15면에 계속>